

 안산상공회의소	報道資料	담당부서	회 원 조 사 팀
		담 당 자	팀 장 윤 경 태 대 리 이 채 윤
		전화번호	031-410-3030(내선247)
2026년 9월 17일(목) 배포 시 보도 요망		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am.net) ▷ 새소식 ▷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	

'26년 안산기업 추석 명절 평균 휴무 일수, '4.4일'

- 추석연휴 전체휴무 72.2%, 생산라인 가동 21.6%...주요 이유 '납기 준수'
- 추석 상여금 지급 예정 기업 50.5%, 현물 지급 예정 기업 72.2%

안산상공회의소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안산지역 소재 기업 97개사를 대상으로 '2026년 안산지역 기업 추석 휴무 계획 조사'를 실시했다.

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산기업의 추석 명절 휴무 기간은 평균 4.4일(주말 및 공휴일 포함)로 '총 4일간(79.4%)' 휴무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, '총 4.5일~5일간(13.4%)', '총 6일 이상(7.2%)'으로 응답했다.

올해 추석 명절 연휴에 생산라인 가동 계획을 조사한 결과, 안산기업의 72.2%가 '전체 휴무'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어 '생산라인 가동(21.6%)'[일부 생산라인 가동(18.5%), 모든 생산라인 가동(3.1%)], '생산라인 없음(6.2%)' 순으로 나타났다. 생산라인을 가동 예정인 기업의 주요 가동 사유로는 '납기 준수'가 52.4%로 가장 많았으며, 설비 특성상 연속 가동 필요(28.6%), 주문량 증가(9.5%), 생산량 확보(9.5%) 순으로 조사됐다.

추석 명절 상여금의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, 안산기업 중 50.5%가 '지급 계획이 있음'이라고 응답했으며, 49.5%는 '지급 계획이 없음'으로 나타났다. 상여금을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 중 '정기상여금'을 지급하는 기업이 61.2%로 가장 많았으며, '특별상여금'을 지급하는 기업은 38.8%, '정기·특별상여금 동시 지급'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. 한편,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'선물 등으로 대체(31.3%)'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'별도 지급 규정 없음(29.2%)', '연봉에 포함(25.0%)', '경영 악화(8.3%)', '기타(6.2%)' 순으로 나타났다.

추석 명절을 맞아 현물을 지급할 예정인 안산기업은 72.2%로 나타났으며, 27.8%는 지

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. 현물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현물 환산 금액은 평균 67,500원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안산상공회의소는 안산지역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, 경기전망지수(BSI) 등 각종 실태를 조사·발표하고 있다. 자세한 문의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조사팀(T. 031-410-3030 / 내선 247)으로 문의하면 된다.